

# 소각장·화장장은 혐오시설 아닌 필수시설...광산구, 인식개선 나서

### 소각장 설치위해 선진시설 견학 추진 시대 흐름 따른 공익적 필요성 판단 타당성부터 철저분석 주민설득 할 것

광주시 광산구가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그동안 '내 안마당에는 절대 안돼'라는 '남비(NIMBY)' 현상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현안에 대한 주민 반감을 줄이기 위함이다.

16일 광주시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광산구 신가동 주민 30여명을 초청해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유니온파크'를 방문했다.

주민 친화시설(공원)로 탈바꿈돼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의 실태를 둘러 본 것이다. 이번 견학은 광산구가 주민들에게 소각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하고 인식전환을 위해 준비했다.

전국의 대표적인 자원순환시설의 견학을 추진해 주민들에게 쓰레기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

식시켜 광주시가 공모하고 있는 소각장을 유지한다는 것이 광산구의 계획이다.

또 지난 6일 월곡 2동을 시작으로 동별로 순회해 주민들을 초청, 하남유니온파크를 비롯해 동부권 광역자원화시설 등 타지역 선진지 시설의 견학을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는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알려진 소각장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또 다른 혐오시설로 인식된 동물화장장 시설 허가를 고심하고 있다.

최근 광산구가 불허한 동물장례식장(화장장) 설치 사업을 놓고 해당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 소송에 패소한 것도 한 이유다.

해당 재판부는 '주민 반감을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지만 동물 장례식장이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광주에 동물장묘 시설이 전혀 없는 만큼 공익적 필요성도 있다'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광산구도 '불허' 입장을 고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광산구는 이번 행정 소송의 패소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오는 18일까지 제기할 수 있는 항소

를 포기하기로 했다.

다만 광주시가 소각시설을 모두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은 명품 공원과 함께 레저·복지시설로 꾸미겠다고 밝히고 유치 지역에 지원되는 주민 편의시설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 약속을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광산구는 이와 함께 주민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오염 저감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주민들 사이에 혐오 및 기피시설로 각인돼 왔었던 쓰레기 소각장과 동물 화장장 시설의 허가를 놓고 광산구의 행정 정책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장묘시설도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갖춰야 할 필수시설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제한 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없는 상태"라면서 "타당성 조사 과정부터 철저히 분석해 주민들이 정말 반기는 시설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착한도시 서구, 어르신들 덕분입니다' 광주시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지난 15일 '착한도시 서구, 어르신들 덕분입니다'를 주제로 열린 경로당 놀이대회에서 어르신들이 웃음노기를 즐기고 있다. <광주시 서구 제공>

## 서구, 부모·자녀 함께 도심속 문화유산 탐방

### 31일까지 참가자 모집

광주시 서구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도심에서 역사를 둘러볼 수 있는 탐방 체험활동을 준비했다. 16일 서구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시민교육 '서구! 나눔의 길을 찾아 걷다'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월항쟁과 광주 시민의 나눔 정신을 배울 수 있는 '5·18 기념공원'과 '오월루',

누정(樓亭)과 만드리의 나눔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만귀정', 회재 박광욱 선생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과 삶을 배울 수 있는 '벽진서원' 등을 탐방하며 '착한도시 서구'의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체험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장소 탐방마다 전문강사의 스토리텔링이 더해지고 벽진서원에서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무드등 만들기' 체험활동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1기(11월 2일), 2기(11월 9일) 각 20명씩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세레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호준 행복교육과장은 "서구는 5·18 주먹밥 나눔 등 역사적으로 약자를 배려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도시이며 이번 탐방은 주민들에게 신뢰와 배려, 동행의 가치를 둔 '착한도시 서구'의 정체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예술인·주민 소통 '예술여행센터 아트마켓'

### 지역 예술인 작품 전시·판매...버스킹·태권도·난타 등 다채

### 19~20일 예술여행센터 일원

광주시 북구가 예술인과 주민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16일 북구에 따르면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일원에서 지역 예술인, 관광객, 주민들과 함께하는 '예술여행센터 북구 아트마켓'을 개최한다.

예술여행센터 아트마켓은 예술작품을 매개로 지역 예술인과 관광객·주민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해 지역문화 예술을 진흥하고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이 행사는 지난 2022년부터 북구가 운영하는 예술여행 콘텐츠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Hope & Art : 꿈과 희망이 아트를 만나다'를 주제로 펼쳐진다.

행사에서는 지역 청년·청소년 작가들의 애정이 담긴 작품을 비롯해 예술가, 공예미술가, 관광기획자들의 다양한 창작품이 전시·판

매된다.

또 버스킹, 비보이, 태권도, 재즈, 난타 공연 등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행사장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우리 지역 예술관광 플랫폼으로 역할하고 있는 맛있는 예술여행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술교류를 촉진하고 북구의 대표 관광 자원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자리 잡고 문을 연 '맛있는 예술여행센터'는 '북구 8경 AI 사진관', 'VR 체험존' 등 스마트 관광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 예술관광 거점 플랫폼 시설로 지역 대표 예술·관광 자원을 체험해볼 수 있는 특색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매년 선보이고 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 "산수동 일대 노후주택 수리해드려요"

### 동구, 11월15일까지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참여 가구 모집

광주시 동구가 산수동 일대 노후주택 수리 신청자를 모집한다.

동구는 다음달 15일까지 '광주 동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친환경자원순환센터(산수동 531-7) 일원, 산수2동 행정복지센터(산수동 512-3) 일원이다. 해당 지역 2곳은 주거환경 평가 결과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으로 파악됐다.

시범사업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관내 노후화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및 4층 이하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이다.

지붕·방수·창호·단열·설비 등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와 담장 재조성(1.2m 이하), 건물 및 담장 페인트칠, 대문 교체 등 경관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 등을 지원한다.

집수리 사업을 신청 할 주택 소유자(등기부등

본상)은 동구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사업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와 함께 구청 5층 도시재생과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정량평가를 시행한 후 선별된 가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및 정성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확정지를 예정이다.

동구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온라인 접수 및 신청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모집 기간 동안 산수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원활한 신청·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 구역 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각종 SNS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대상 주택에 개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겠다"면서 "시범사업구역 저층 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